

우리 음악의 뿌리 캐들어간 학문 외길

《한국음악사논고》 펴낸 宋芳松 교수

학문하는 사람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야 할 이유나 필요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송방송(54, 영남대 국악과)교수는 한국음악사학 연구에 끼친 공로나 학문업적에 비추어 지명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발췌한 언론의 포화가 서울이 아닌 지방대학에 몸담고 있는 그를 비껴 간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듯한데, 그는 오히려 그 사실이 고맙기만 하다. 그야말로 '잡사'에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교수가 최근 펴낸 《한국음악사논고(韓國音樂史論攷)》(영남대출판부)는 198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음악사를 구명하려는 그의 학문적 노력의 결실인 논문 21편을 수록한 책이다. 《한국음악사연구》(1982, 영남대출판부) 《한국고대음악연구》(1985, 일지사) 《고려음악사연구》(1988, 일지사)에 이어 네번째 논문집인 이 책은 한국음악사를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는 송교수의 학문 노정에서 볼 때, 지나온 길도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도 아울러 볼 수 있는 고갯마루쯤에 자리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이미 출간된 《한국고대음악사연구》, 《고려음악사연구》에 이어 조선음악사와 근대음악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1984년 출간했던 《한국음악통사》의 개정판을 내려던 것이 애당초 연구계획이었습니니다.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모든 계획들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책으로 묶지 못한 조선과 근대음악사에 대한 연구결과와 다른 시대사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을 함께 묶어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책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추스려보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발해악’의 정체 밝혀

《고대음악사연구》 《중세음악사연구》 《근대음악사연구》 《한국음악사료연구》 등 총 4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한국음악사 방법론의 정립과 체계화를 위한 송교수의 노력과 학자로서의 성실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숨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아 사료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 자료들을 끊임없이 번역, 발굴하고 취합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의 꼼꼼하고 철저한 ‘음악사료 챙기기’이다.

“음악사학의 역사가 일천하고 방법론조차

음악사 연구에 있어
사료 발굴과 색인 작업을
가장 중히 여기는 송 교수의
《한국음악사논고》는
《한국음악통사》의 개정판을
내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한국음악사 방법론의 정립과
체계화를 위한 노력과
학자로서의 성실성이
유감없이 드러나 있다.

정립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른바 1세대 학자들이 일구어 놓은 학문적 업적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학들의 연구업적의 대부분은 일차적이고 가시적인 사료를 해독하는 데 바쳐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한국음악사 연구를 위한 작업이 서둘러져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악사료 발굴과 이것의 색인작업이 선행되어야겠지요.”

실제로 그가 펴낸 《고대음악사연구》와 《고려음악사연구》의 반 이상이 한국·일본·중국의 원전에 전하는 음악기사 색인이었고, 과로로 그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조선왕조실록 음악기사 총색인》(1991, 국립국악원)이나 《국역 악기조성청의례(國譯樂器造成廳儀軌)》 《국역진찬의례(國譯進饌儀軌)》 등 이미 번역된 책 외에 현재도 진행중인 규장각도서관 소장 음악사료 원전 번역작업들도 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사료 색인작업의 중요성은 이 책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는데 《일본서기》 《속일본기》 《일본후기》 《속일본후기》 《문덕실록》 《삼대실록》 등 일본 육국사(六國史)를 토대로 한 ‘고대음악사연표’ 작업을 통해 송교수는 한국 음악학계에서 소홀히 취급하던 발해악의 실상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고대음악의 일본전파와 관련, 고구려·백제·신라에서는 자국의 악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당시 일본에 건너가 거주하던 자국민 중에서 악생을 선발해 가르치는 한편, 본국의 사신이 오면 그 앞에서 본국의 음악을 연주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음악학계에서는



송방송 교수.

일본조정에서 연주되던 발해악 역시 발해국에서 파견된 악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통설이었다. 그러나 송교수는 이 책에서 당시 일본조정에서는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 고구려와 발해를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발해국 악사의 파견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었음에 비추어 발해악은 곧 고구려 멸망(668) 이후 일본에 남아 있던 고구려 악사와 악생들에 의해 연주된 악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일본과 발해 두나라 중신들의 역사인식은 음악사학적 관점에서는 발해악의 실상을 밝히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발해사가 한국사의 일부임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큰 역

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음악사 구명 위해 제도사 연구도 아울러

제2편 《중세음악사연구》에서도 기존 음악사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통설을 뒤엎는 새로운 주장을 만나게 된다.

고려시대의 당악(唐樂)에 대한 연구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까지 고려 당악의 연구는 그것의 음악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낙양춘(洛陽春)’ 등 몇몇 악곡에 대한 해석이나 노랫말에 대한 문학적 연구에 머물렀던 실정. 따라서 현재 국립국악원이 계승하고 있는 당악의 뿌리로 볼 수 있는 고려 당악의 실상을 제대로 밝히기에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려사》 《고려도경(高麗圖經)》 《조선왕조실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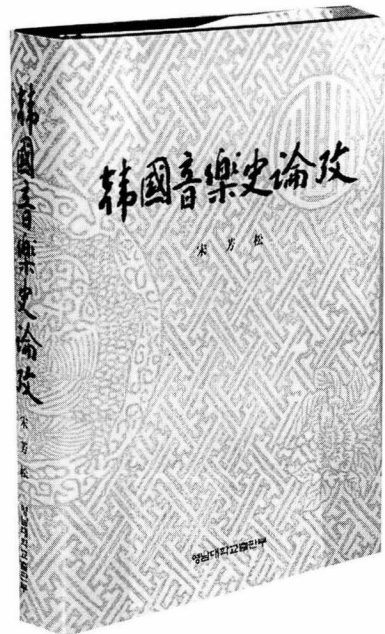
문헌사료에 의거해 고려시대 당악의 구체적 내용과 전래과정 및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밝힘으로써 고려 당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송나라의 '교방악(敎坊樂)'을 수용한 당악은 고려의 음악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특히 무고(舞鼓)·무애(舞磬)·동동(動動)과 같은 향악정재(鄕樂呈才)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조선초기 당악정재(唐樂呈才) 창제의 뿌리 역할을 한 것이 고려 당악이 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압축적인 의의라고 그는 말한다.

“음악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한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와 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사 연구의 영역도 사회제도적인 측면으로까지 당연히 넓혀져야 합니다.”

송교수는 이러한 사회학적 관점으로 조선 세종 때의 궁중음악 연주를 담당했던 아악서(雅樂署)와 전악서(典樂署)의 체제와 구성원들의 수효, 사회적 신분을 살피고 악공·악생들의 봉록제도와 같은 제도사적 고찰을 행하고 있다.

그는 이 고찰을 통해 세종 중기부터 아악서와 전악서의 녹관(祿官)수가 점차 증원되었음을 보이고, 아악서의 인원이 전악서보다 약 2배 가량이 더 많이 증원된 것은 향당악보다는 아악의 부흥에 주력했던 세종 당시의 음악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 아악서의 악공은 양인중에서 선발됐음에 비해 전악서의 악공은 천민 가운데서 뽑혔으며 두 기관이 장악서(掌樂署)로 통폐합된 이후 아악서의 전통은 우방 소속 악생에게로, 전



악서의 전통은 좌방 소속 악공에게로 계승되어 악공과 악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제도로 굳어졌음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한국음악의 특수성은 외래의 음악을 자국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전통음악을 창조적으로 계승해내는 한민족의 창조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한민족의 창조능력이야말로 한국음악의 미의식 또는 공연예술의 미의식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음악 정체성 확립이 궁극적 과제

문헌자료나 고악보 등에 의존해 추론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전제하면서 그는 음악사라

는 관점에서 발견되는 한국음악의 미의식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짓는다.

따라서 송교수에게는 한국음악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글픈이기도 하다.

“음악학이면 음악학이지 한국음악학이라고 굳이 이름을 달아야 되는 우리의 현실은 서양음악의 그늘에 가려 우리 음악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교수는 우리 음악이 현재 노정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우리의 전통을 단절시켰던 일제의 문화침탈과 함께 아직껏 청산하지 못한 식민의 잔재, 그리고 친일세력들을 꼽는다. 따라서 이 책에서 일제시대 <매일신보>의 음악기사 색인을 토대로 현재명, 홍난파, 윤국영, 박태준, 김성태, 이흥렬, 채동선 등 광복 후 한국양악계를 주도해왔던 기성 음악인들의 친일활동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통은 죽어버린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늘 역사의 흐름과 함께 현재라는 시점에서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따라서 한국음악사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박제된 전통을 이론적으로 파헤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 미의식과 음악적 역량을 지녔던 우리 민족음악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바람직한 민족음악을 확립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놓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문제를 떠나서 진정한 민족음악의 확립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당면한 민족음악의 과제는 다름아닌 통일을 대비한 민족음악학의 정립에 있겠지요.”

음악학의 역사가 긴 외국에서의 공부가 민

족음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역사의식과 음악연구 방법론의 정립에 도움을 주었다는 송교수는, 캐나다 맥길대학에서 아시아 및 한국음악학을 강의하다 귀국하여 국립국악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2년 남짓한 이 시기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연구실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시기였다고 술회한다.

송교수는 지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논문 발표할 장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지난 88년 ‘한국음악사학회’를 창립, 현재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반년간 학술지 ‘한국음악사학회보’(14집 발행)를 한 호도 거르지 않고 발간한 사실은 이 학회의 충실한 학문활동을 대변하고도 남는다. 그 덕분인지 이 학회는 지난해 ‘한국음악학’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했고, 현재 재중신회원만 450명에 이를 정도로 큰 학술단체로 발전했다. 송교수는 한국음악사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가는 것 같아 내심 기쁘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 의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책에서 눈을 떼고 산을 찾는 것 외에는 달리 취미도 없다는 송교수는 그냥 공부하는게 재미있고 좋다. 《한국음악사통사》를 쓰면서 발견했던 한국음악사 연구의 공백과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작업에 다름 아닌 송교수의 공부는 《한국음악통사》 개정판과 《한국음악사전》의 출간으로 일단락될 계획이다. 한국음악사학의 체계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두 책이 학문 외적인 장애없이 서둘러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박남정 기자

편집부 경력 사원 모집

정신세계사에서
같이 일합시다

정신세계사는 파란색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파란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세계사는 10년 넘게 한 우물만을 파 왔습니다.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한 가지 색깔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세계’라는 색깔입니다. 그러나 같은 파란색이라 해도 수많은 색이 있을 수 있듯 ‘정신세계’ 속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 ‘편집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들 못지 않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파란색을 고집하면서 좀 색다른 파란색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신세계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해 주십시오.

경력: 1년 이상, 외국어와 컴퓨터를 잘 할수록 좋고, 되도록 나이는 서른을 넘지 않고, 한 군데 오래 근무할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조건에 맞는 분이면, 사진이 붙은 이력서 1매, 자기소개서 1매(A4 1면), 임의의 정신세계사 발행도서 1권에 대한 독후감 1매(A4 1면), 자신이 주된 역할을 해서 만든 편집물 1점을 오는 8월 25일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서류를 검토하여 면접할 의사가 있는 분께만 8월 3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봉에 ‘입사지원 서류’라고 쓰시고 문의나 직접 방문은 자제하셔서 저희 시간을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